

연중 제 20 주일

기도서 414면 (A해)
 제1독서 : 이사야 56, 1. 6-7
 제2독서 : 로마 11, 13-15. 29-32
 복음 : 마태 15, 21-28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 15, 29).

강론



민주화를 위하여

박 중 신 신부

1971년 3월, 박정권의 독재연장을 위한 선거유세에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를 자처하던 당시 국회의장 이효상은
 “경상도 사람으로서 경상도 경권 후보에게 표를 안찍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역사에 길이 기억될 망국적 발
 언을 서슴치 않았다.

6·29선언이 고뇌에 찬 영웅적 결단이나? 국민에 대한
 항복선언이나? 를 놓고 말들이 있는 모양이다. 독재자가
 어떻게 자유와 민주를 선물할 수 있느냐고 반문도 하는
 모양이다. 어쨌든 1987년 6월은 위대했고, 그동안 기나
 긴 침묵을 지켜오던 대다수의 중산층이 입을 열기 시작
 했고 행동을 같이해,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역사의 새로
 운 장을 열어 놓았다. 그리하여 지금 한반도의 반쪽은
 민주화의 열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각계 각층에서 민주
 화의 몸부림이 힘차게 일고 있다.

민주화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민주화란 한 마디로 인간화를 말하는 것이다. 하
 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존엄성과 아
 름다음,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것이다. 파괴된 인간성의
 회복이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신자들이 해
 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특히
 주인인 민중들을 억압하고 수많은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
 힌 정치가들은 스스로 그 자리를 양심적이고 국민을 하
 늘치려 할 알아 모시고 두려워하는 민주인사들에게 양보해
 야 할 것이고,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재벌이 된 기업
 들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고 부의 적절한 분배
 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어제는 호헌을 외치
 던 사람이 오늘은 개헌·민주화를 말하는 변신에 대해 국
 민들은 더 이상 우당탕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양심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암흑시대
 에 감옥과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있게 행동한 양심인들과
 성직자들의 예언자적 언행에 주목해야 한다.

세째, 화해와 용서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적대감
 정이나 미움 자체로는 민주화가 불가능하므로 사회 구석
 구석에 만연된 불신풍조 제거에 앞장서야 한다.

네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선언이 있었지만 아직
 까지 제대로 실천된 것도 없고, 민주화가 된 것도 아니
 고, 확실한 보증도 없으므로,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억울하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고 인간성이 회복되어 평
 화와 정의가 넘쳐 흐르는 그날이 오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효자동 천주교회)



8월 7일자

전북일보 11면

「원평천 신부 의사사건」 기사를 읽고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대중매체(특히 언
 론매체)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그것은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
 리는 지역사회에 언론매체를 두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중
 앙지에서 지역사회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고도 시청료를 내러 들지 않는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그것은 언론의 무능한 한 모습이랄 수
 있고 언론의 정확성과 공정성 결여에 대한 저항운동의
 한 움직임인 것이다.

특히 신문의 기사는 발로 써야 된다고 한다. 그것은
 그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기 위함이다. 한 줄의
 짧은 기사가 정확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면 엄청난 여파
 를 부르기 때문이다. 한 번 잘못 쓰여진 기사는 관련된
 개인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
 다.

비극한 예로 지난 8월 7일자 이 지역 유일한 공적 보
 도매체인 전북일보를 지적한다. 어떤 한 사건을 자기들
 의 상상력을 동원, 사실에 입각한 보도의 정확성을 무시
 한 채 성급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 그것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적잖은 분노를 날게 했다. 사실과 달리 엉뚱한
 흥미와 재밌거리 눈길로 유도시킨 그 기사는 마땅히 정
 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책임있는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
 다. 그저 형식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짧은 정정기
 사나 해명기사가 그 치명적인 타격의 피해를 보상할 수
 는 없는 법이다.

잘 써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피해를 입은 쪽은 불
 매운동으로 맞설 수도 있다.

숲 정 이 산책

편히 잠드소서

주여 亡者에게 永遠한 安息을 주소서.

永遠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지난 4일 새벽 불의의 사고(사제관 화재)로 병원에 입원중이셨다가 10일 오전8시30분 세상을 떠난 이 바오로(대권) 신부님의 영결미사 및 장례식이 8월 12일 오전 10시30분 삼례성당에서 거행,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신부님은 1950년 11월 21일 사제로 서품 후 37년동안 평생을 사제로 지내시면서 오로지 신자들을 위해서 사셨을 뿐입니다.

신태인본당, 전주 순정이본당 성전건립 및 수도회 교구에 영입(동정성모회) 등 교회 를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셨던 신부님은 순한 고생과 사생(死生)의 여정 속에서도 굳은 의지와 사제정신으로 늘 기쁘게 사셨을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깊은 애정으로 자상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가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셨지만 약결과 모순을 지닌 모든 인간의 죽음에 그러하듯이 그분의 삶 안에서의 살아 남아있는 우리들과의 기뻐던 그 일 들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 속에 오랜 추억으로 남겨두고 가슴 아팠던 모든 것은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 중에 기억해야 할 뿐입니다.

삼가, 다시 한번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기도합니다.



故 李바오로(大權)신부

「하 여 간」

수류성당 앞 제방 복구작업과 하계 수련대회를 결해 서울 반포성당 청년 봉사대원(28명)을 인솔하고 내려왔던 정낙교(34, 반포보좌) 신부가 8월 4일 오후 8시 여평 신도 1명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에 익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돌연한 사고로 충격과 슬픔에 휩쓸린 사람들을 위로와 협조는 뒤로 하고 사사건건 국민의 지탄을 받던 경찰과, 언론의 사명도 역할도 망각하고 어용으로 표류하던 전북일보가 좋은 호재라도 얻은듯 단 한번의 현장취재도 없이 경찰의 추리대다 기자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치 기자정신의 발로인양 범죄성 여부 운운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사를 8월 7일자 신문에 게재했다. 물론 (두) 사람의 이름도 신분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마을 전체가 신자들이고, 어떤 지형지물도 없는 마을

앞이다. 당시의 급류와 지형으로 보아 실족하면 “물개도 죽을 수 밖에 없는” 정황으로 실종은 곧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도피, 은폐로 수사방향을 돌리고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검찰-경찰-신문의 작태는 픽션의 모델이며 권의 흥포가 아닐 수 없다.

전북일보 만화 제목인 「하여간」이 전북일보 자신의 모습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인들의 일말의 양식이 있기를 촉구한다.

수류 신자들의 눈물겨운 노고에 보답하고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경중을 주려는듯 정신부는 7일 낮 1시경 김제 내광천 모래톱 위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이제와서 책임회피와 변명만을 일삼는 그들과 민주의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일이 난감하면서도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의를 다진다.

농협규격 위생봉투 100% 포장(농약공해 없음)

한일포도원

이 병 대(베드로)
(덕진공원 남쪽 250m지점, 덕진중 정문옆)

76-0877

신도사무기상사
(주)신도리코 전주특약점

복사기·팩시밀리·마스타 인쇄기·윤전등사기·각종 사무기기 및 소모품일체

☎ 6-9666·84-3678

오 중 원(아오스당)
이 정 윤(안젤라)

☐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전주시 고사동 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 앞)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글라라)

교 구 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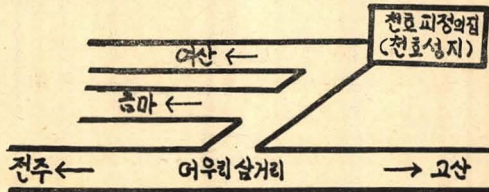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

천호 피정의 집 축성 및 봉헌식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작년 4월 14일 기공식을 가졌던 천호 피정의 집이 주님의 도우심과 신자들의 협조와 기도로 완공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의 집전으로 아래와 같이 축성 및 봉헌 예식을 갖고자 하오니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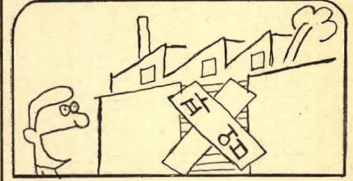
- ◎ 일 시 : 1987년 8월 31일(월) 오전 11시
- ◎ 장 소 :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천호 피정의 집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중앙위원회

1. 교구 재정심의회 : 18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2. 성소자 모임 : 중·고·대·일반-21일(금)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3. 사제 어머니 모임 : 20일(목) 12시, 장소-신수당(강덕행신부 모친택)
 4. 베소라성서 초급반 개강(모세 오경) : 강사-김보나 수녀
 개강일시 : 군산반-9월 7일(월) 오후 2시~4시, 장소-오룡동 천주교회
 전주반-9월 9일(수) 오전 10시~12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이리반-9월 1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창인동 천주교회
 5. 가톨릭교리 신학원 졸업생들을 위한 하기 연수회
 일시-18일(화) 오전 9시부터(2박3일), 장소-가톨릭교리 신학원
 대상-가톨릭교리 신학원 졸업생, 회비-1만원, 문의처-(02) 762-2272~4
 준비물-필기구·성무일도·성가책·세면도구
 주재-말씀과 신앙인 공동체의 삶
 6.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평화동 천주교회 사제관 85-6979
 전주시 평화동 1가 357 풍전맨션 103호
- 축! 영명 : 성 베르나르도(20일) : 소순형 신부님 축하합니다

요십이 (732) 김병오



□ 1분 명상

정복의 기쁨은
 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클 수록
 큰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명동피부과의원

한 요 가 원

일반요가 · 단식지도
 개인시술
 이 순 웅 (아오스딩)
 노 영 학
 전주시 중앙동 2가 3-1
 (전주백화점 뒷골목)
 (0652) 83-4410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군신경의과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원장 신일균(아오스딩)
 윤 로사리아
 ☎ 병원 ⑦266
 자택 ⑥417
 전주 관동로 전주백화점→
 다가교 중간지점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26-6077
 (조흥은행 앞문운의과 내)

각종 가스렌지
 L·P·G 판매
한국 가스 상사
 ☎ 75-5200
 74-8484
 김성두(토마스)
 이미자(안젤라)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 전문의 마 기 환
 한남희(비리시다)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85-2203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양)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양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반미사 안내: 당분간 쉽니다
예비자 입교에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전주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스티카 배부: 사무실
기쁨사건 기쁨마련: 많은 애용바랍니다
본당버스 이용안내: 유치원 방학으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마무리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

(금양)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노현택
사무실 76-0961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금주는 선교주간: 꾸리아 회의-오늘 오후 2시
차주는 애령주간입니다
안나회 월례회: 20일 오전 10시
첫영성체 교리: 25일~9월 25일(화·수·목·금)
유아세례: 28일 저녁미사, 대상자는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신축헌금 50주년 분담금: 헌금납부에 협조바랍니다
감사: 신축헌금: 이순옥-2만원, 최봉운-1만원
금주복사: 윤기환·최장수, 차주-이대용·장유진
금주봉헌: 이수일 부부, 차주-오제열 부부
미사안내: 구세주의 모친 pr, 차주-매피의 모후
지난주 봉헌금: 606,160원 교무금: 254,500원
신축헌금: 30,000원 수재의연금: 602,230원
의류: 410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 LM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16일 오후 2시 유치원)
평의회 간부 선임: 축하와 성원을 드립니다
병자봉성체: 18일(사무실에 신청바람)
새신자: (예비자)교리반 안내
일요일 공식미사후: 성인 일반(성당), 화요일 오전 9시: 노인(성당), 10시-주부(성당), 수요일 오후 7시-젊은이(사제관 2층 교리실), 목요일 오후 8시-적장인(사제관 2층 교리실), 토요일 오후 4시-중·고생(사제관 2층 교리실)
이세바스찬 수녀님 신병으로 당분간 요양
수녀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 성원바랍니다
교우의 본분인 교무금과 주일헌금에 정성 바랍니다
신축헌금 미납분(50주년 헌금으로 대치): 협조를 바랍니다
금주의 분당청소: 치명자의 모후 pr-22일 오후 2시
지난주 봉헌금: 590,120원 교무금: 458,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수녀원 신축헌금 신입 및 납부현황
9월까지 총신입액-7,300,000원(89세대)
9월까지 총납부액-4,115,000원
분당신부님 휴가: 17~21일(동창신부님 모임)
19일 성령기도회 있음
예비자교리: 성인-모 오후 8시30분, 중고생-토 오후 6시, 주부반-금 오전 9시30분
수요 나눔잔치: 팔2·4구역, 차주-팔3구역
분당청소: 매피의 모후
모임안내: 꾸리아 회의-오늘 공식미사 후 2시
구역장 회의-27일 오후 8시30분

- 사목회·모이세회·애덕회-차주 공식미사 후
6. 금주전례: 해설-최경진, 독서-①최연조 ②김영원
차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이동열 ②전걸순
지난주 봉헌금: 246,650원(내동 19,700원)
교무금: 112,000원 나눔의날 헌금: 43,840원
수재민들기 헌금: 78,48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목회장 소병을

- 축하합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에 영세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치명자의모후 꾸리아 창립: 15일(성모승천 대축일)
꾸리아 간부: 단장-김은식, 부단장-이준희, 서기-하용숙, 회계-김해숙
어머니성가대 발족: 지휘-김미숙, 단장-서카타라나, 부단장-이아네스, 반주-발바라
예비자교리: 23일부터, 사무실에 접수
금주 분당청소: 성심부녀회-22일 오후 3시
지난주 봉헌금: 216,900원 교무금: 56,00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축하합니다: 성모승천대축일에 영세한 41명께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9시
4. 성모성령 묵주신공: 100만단의 장미송이를 성모님께 열심히 바칩시다
개인-신청용지에 기록하여 제출
단체-평일·주일미사 전후 합동 묵주기도 5단 바칩니다
5. M·E교육: 21일~23일-김도마·오루시아
허병무·정정경
6. 이데레사 수녀님 휴가: 17일~25일
7. 성서연수: 이아논시앗파 수녀님, 이데레사 수녀님
26일~28일
8. 감사: 성가대에 선봉기 회사 2개
-문마리아나·김정배
9. 미사안내: 상아보탑
10. 금주 분당청소: 화-평화의 모후, 토-애덕의 모후
11. 금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기도-김창현·민복순
봉헌기도-김진섭·김영희
차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기도-나병열·조현자
봉헌기도-박영근·장정진
지난주 봉헌금: 494,270원 교무금: 416,1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예비자를 잘 인도합니다
예비자교리-수요일 오전 10시·저녁 8시
2. 미사시간을 엄수하세요
교백성사는 매 미사전 15분전에 드립니다
3. 하루에 한장씩 성경을 읽읍시다
4. 오늘의 모임: 안나회-공식미사 후
할머니들은 꼭 참석을 바랍니다
5. 금주의 모임: 자모회-20일 어머니미사 후
6. 다음주 모임: 꾸리아·매피회
8. 초등부 전례단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9. 금주전례: 해설-최명자, 독서-기도-강호준·이순자
봉헌-채수원·정걸순, 안내-안남근·박창윤
차주전례: 해설-안남근, 독서-기도-김진영·이경순
봉헌-박창윤·윤경희, 안내-한갑용·경화중
지난주 봉헌금: 414,430원